

##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 I. 중국 투자환경 변화

#### 1. 세계혜택 축소

-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부과되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일원화
  -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사업이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장려사업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던 이익발생일로부터 초기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이후 3년 간 기업소득세 50% 감면의 우대혜택 폐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대혜택 부여
  - 중서부지역의 '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내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2010년까지 15%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 부과
    - 중서부지역에는 북쪽의 허베이성(河北省)으로부터 남으로 광둥성(廣東省), 하이난성(海南省)에 이르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포함.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6년 9월에 랴오닝성(遼寧省)의 '외국인투자 비교우위 목록'을 인가하면서 랴오닝성도 중서부지역의 우대 혜택의 대상 지역에 포함
  - 경제특구, 푸둥신구(浦東新區)의 신규설립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과도기 우대 세율 적용(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
  - 빈하이신구(濱海新區) 내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 부과
  - 민족 자치주(현)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중 지방 귀속분에 대해 감면 가능

-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기업(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수출상품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비율 인하 내지 축소
  -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억제 목적 이외에 대폭 증가하는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 2. 노동 경직성 강화<sup>1)</sup>

- 종신고용 보장: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 근로계약을 연속해서 2회 이상 체결한 근로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등이 대상
- 해고 제한: 근로자 해고사유는 사규의 중대한 위반, 기업에 중대한 손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수반될 경우, 교육 훈련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해서도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및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변화될 경우 등으로 제한
  - 근로자 해고 시 사전에 노조(工會)와 협의 및 정부 노동관리 부문에 보고: 경영환경의 중대 변화로 20명 이상 또는 전체 직원의 10% 이상 감원 시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노동관리 부문에도 보고 의무
  - 구조조정 시에는 장기 근로자보다는 단기 근로자 중심의 감원
- 보수, 근로시간, 휴가, 근로 안전, 복지,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대회 또는 전체 근로자의 토론을 거쳐 노조와 협의
- 기타
  - 감원, 양로보험대상 등에 따른 계약해지 시에 매 6월마다 1/2개월분의 경제보상금 지급
  - 경쟁기업 취업제한을 실시한 기업은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 지급
  - 기업의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도 당초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
  - 근로자들의 단체 근로계약 체결 협용
  - 동일 근로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
  - 근로계약 해지나 근로계약 종료 시에 관련 계약서의 2년간 보존 등

## 3. 환경 규제

---

1) 2007. 6월에 발표된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의 주요 내용

- 11차 5개년(2006~10) 계획에서 자원 절약을 국가시책으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추진하며, 대도시와 연해지역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 배출 총량과 에너지 소모율을 2010년까지 각각 10%, 20%씩 축소시킬 예정
- 주요 지역과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개선 및 생태환경 악화 억제에 우선
  - 2010년까지 전국 도시지역의 오수 처리비율을 70%로, 생활쓰레기의 무독성 처리비율을 60% 이상으로 제고
  - 이산화황 배출 총량 억제를 통한 대기오염 억제
  - 중·대 도시 및 근교에 발전소, 철강, 제련 기업의 신축·확장 금지
  - 환경오염 유발이 적은 풍력, 태양열, 지열, 원자력, 수력 등 청결 에너지원의 적극 개발
- 삼동시(三同時)제도 도입: 환경오염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제도의 도입
  - 설비는 신설, 교체, 확장하는 경우에 환경오염 억제 관련 시설을 해당 프로젝트 공정과 동시에 설계, 시공하는 한편, 제품생산 시에 환경 처리설비가 가동 되도록 하는 제도(三同時 제도)를 시행하여 환경오염 억제의 예방기능 강화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 가동 중인 기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공개
  - 2005년 11월에 '기업 환경영향평가는 평가강화 추진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企業環境行爲評價工作的意見)을 발표하여 2006년부터 지방별로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2010년에는 전국의 모든 도시 소재 기업으로 확대 추진
  - 환경영향평가는 설비의 신설, 확장, 교체 시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 기업의 오염물 배출 억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
  -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녹색(매우 양호), 청색(양호), 황색(보통), 흥색(불량), 흑색(매우 불량)의 5단계로 분류, 공표
- 지방별 심의제한: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를 초과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의 심의 중단 실시
  - 오염물 배출총량 규제를 초과한 지방에는 오염물 배출총량을 신규로 증가시키는 사업의 심의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지방별 '심의제한'(區域限批) 제도의 도입·시행
  - 심의제한이 발동되면 해당 지방과 기업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전에는 해당

## 지방의 환경오염 유발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의 인가 중단

- 오염물 배출총량제 실시: 기존 오염원에 대한 오염물 배출총량 억제
  - 기존 오염원에 대해서 오염물 배출의 총량억제목표를 지방정부별로 하달하고 오염물을 주로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 배출 억제
  - 오염물 배출 허가증 제도의 시행을 통해 동 허가증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배출 금지
- 낙후 기술과 노후 설비 폐기: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적극 추진
  - 자원 다소비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낙후 기술과 노후 설비 폐기 적극 추진
  - 2005년 12월에 제정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産業構造調整指導目錄2005年本)의 '장려', '제한', '폐기' 중 '폐기' 목록에 대해 적극적으로 폐기 집행
- 수출입 금지 및 제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억제를 위해 수출입 금지 또는 억제 품목 명문화
  - 2006년 1월부터 고 오염, 에너지 · 자원 다소비 산업의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금지
  - 2006년 3월부터 냉장고 ·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를 이용하는 공업용, 상업용 컴프레서의 수출과 수입 금지
  - 2006년 9월부터 석탄, 천연가스, 역청, 규석, 파라핀, 비철금속 및 그 폐품 등 의 수출과 관련된 증치세 환급 취소. 또한 철강, 도자기, 시멘트, 유리, 방직제 품, 가구, 라이터 등의 수출 증치세 환급비율도 축소
- 전자정보제품 오염억제: 전자정보제품의 사용 후 폐기 시에 환경오염을 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 생산제품은 물론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 200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보제품의 오염억제 관리 규정'(電子信息產品污染控制管理辦法)에서 정한 유독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동 유독유해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Cr6+(Chromium6+), PBB(Polymerization Bromination Biphenyl), PBDE(Polymerization Bromination Diphenyl Ether) 등
  - 전자정보제품은 유독유해물질 함유량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 유통이 허용되며 포장재나 사용 설명서에 다음 사항 명시 의무
    - 유독유해물질의 환경적 사용기간

- 유독유해물질의 명칭, 함유량 및 재활용 가능성
- 사용되는 포장자재의 재질과 명칭 등

#### 4. 임금 상승

- 최근 연평균 약 20%에 달하는 높은 임금상승률
  - 2002~06년 중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19.5%로서 동기간 연평균 GDP증가율 10.3%를 크게 상회
  -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지향하는 정부의 지도방침에 기인
  - 지방별로 최저임금의 잦은 상향 조정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

### II. 중국 진출 기업의 대응

#### 투자환경변화에 따른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경영상황

-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산둥성 칭다오(山東省 青島), 장쑤성 쑤저우(江蘇省 蘇州)에 소재한 8개 기업에 대한 현지방문 조사 결과
- 대부분이 수출기업으로 기업소득세 감면혜택 취소, 가공무역 관련 증치세 환급비율 인하·취소 등으로 향후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의 취소 또는 축소를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음
- 반면, 환경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부문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데에 우려를 표명

#### 1. 青島소재 ○○기업

-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된 피아노, 기타 등 악기를 전량 수출하는 기업으로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입 감소로 어려움 직면
  - 중국 기업의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로 위안화 가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
- 고도성장과 소득증대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타 한국기업이 칭다오에서 추진하다가 자금난으로 중단한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관심

- 동사는 동 사업을 인수하여 건설 중이며, 금년 내에 완료되면 이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 등에 임대할 예정
- 상가는 아울렛 형태로 이월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우리기업 제품의 판매매장으로도 활용할 계획
  - 중국 상가는 초기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나 이후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동사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

## 2. 靑島 소재 ○○기업

- 면화를 수입하여 염색하고 원사로 가공하여 한국과 제3국에 수출하는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업종의 기업
- 중국이 면화의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동사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파라과이 등에서 면화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있음
- 동사는 강화된 환경규제를 우회하고자 염색공정을 중국 기업에 외주가공하고 있어 환경문제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작업의 특성상 원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문제의 개선은 필요할 전망
- 원면의 염색은 염색기술의 부족으로 동사 소재지 인근 지역이 아닌 상하이(上海)에 접한 저쟝성(浙江省)에서 이루어져 물류비와 납기 등의 부담이 증대
- 한편, 동사는 원료인 면화를 불가피하게 중국 현지에서 고가로 구입할 경우 이를 한국본사로 수출하여 재수입하는 형태로 관세와 증치세 등의 세제 혜택을 활용
  - 화물이 실제 한국으로 운송되지는 않고 칭다오의 보세물류원구(관세권 밖으로 인정되어 수출된 것으로 간주)를 거쳐 다시 역내로 반입되는 형태
  - 보세물류원구 소재 기업이 수출자로서 한국 본사를 수입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송장을 발급하며, 화물이 칭다오에서 칭다오 소재 보세물류원구

로 입항된 후 그 곳에서 다시 한국 본사를 수출자, 동사를 수입자로 하는 송장을 발급하여 동사 앞으로 화물을 인도

#### <최근 수출상품의 증치세 환급비율>

	조정 후 환급비율(%)	비 고
식물성유	5	2007년 7월 시행
플라스틱 · 고무 및 동 제품	5	"
화학제품	9~5	"
여행용 가방	11	"
피혁 및 모피 제품	5	"
종이	5	"
의류	11	"
신발, 모자, 우산, 오리털제품	11	"
철강 제품	5~0	"
오토바이, 자전거, 펌프, 선풍기, 재봉틀, 스태플러 등	9	"
가구	11~9	"
일부 기계장비 및 IT 제품	17	2006년 9월 시행
일부 가공 농산물	13	"

- 구체적 목록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 참조

\* <http://www.mofcom.gov.cn/aarticle/b/e/200609/20060903167918.html>

<http://www.mofcom.gov.cn/aarticle/b/e/200706/20070604800599.html>

### 3. 靑島 소재 ○○기업

- 동사는 전기밥솥 생산기업으로 지금까지 생산제품의 90% 이상을 국내로 반입
-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최근 시장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미흡
  - 이는 브랜드 인지도 취약, 대리상 등 유통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백화점 입점의 어려움, 가격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
  - 중국 최대의 경쟁기업으로 밥솥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메이디(美的)는 최고가 제품이 200위안 수준인데 비해 동사는 저가 제품이 240위안이고 최고가 제품은 1,500위안을 상회
  - 가격 차이는 중국 경쟁기업의 제품이 안전과 보온 기능을 갖추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끼마다 밥을 하는 습관 때문에 상대적으로

## 안전과 보온 기능을 중시하지 않는 점도 시장점유율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

- 그러나 주력제품의 하나인 압력밥솥은 경쟁기업이 이제 준비단계라는 점에서 동사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유통망 확보에 노력할 경우 향후 3년 내에 시장점유율을 3%로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수시장 개척에 적극적
- 구체적인 내수시장 개척전략은 생산과 판매의 이원화로서, 기존 현지법인은 생산을 전담하고 중국 소비자에 맞는 제품 생산에 주력할 계획
  -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 개발은 아침에 쌀죽을 즐겨 먹는 것에 착안하여 즉 기능을 겸비한 밥솥을 출시한 사례 등
- 판매법인(자본금 15만 달러)은 금년 하반기 중에 설립하고, 이어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베이징(北京), 상하이, 선양(瀋陽)에 판매지사(分公司)를 설치할 예정
  -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광고비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TV 방송국(CCTV)보다 지방 방송국에 치중하고 지방 신문도 적극 활용할 계획
  - 중국 경쟁제품이 갖고 있지 않은 안전과 보온 기능을 강조한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

## 4. 青島 소재 ○○기업

- 철강 등을 생산하는 제련기업에 내화물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원자재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
- 원자재인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나를 산시성(山西省)에서 주로 공급받아 생산제품을 중국에 진출한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 중국의 철강기업에 공급하고 일부는 유럽으로 수출
- 그러나 중국정부가 환경규제를 이유로 산시성 소재 소규모 광산을 폐쇄하고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가공도가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비율의 인하 내지 취소로 동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 소규모 광산 폐쇄로 보크사이트와 알루미나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자원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이들 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비율이 종전에 13%이었으나, 환급 자체가 없어짐에 따라 원가부담이

## 크게 증가

- 동사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북한, 호주 등을 통한 자원 확보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
- 한편, 동사는 현지법인을 담보로 중국건설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차입, 사용
  - 동 차입금은 재대출 형태이나, 만기일에 자금의 일시상환과 담보물에 대한 재평가수수료 등 재정적 부담 가중

## 5. 太倉 소재 ○○기업

-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6년에 자본금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쑤저우(蘇州에) 진출하여 생산된 제품을 중국과 해외의 컨테이너 생산기업에 공급
- 주물제품 생산으로 인한 소음과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냄새 등으로 전형적인 3D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연관 산업인 컨테이너용 고무 부품 외에 특수 자동차용 부품 등으로 생산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각각 자본금 200만 달러의 법인을 추가 설립할 정도로 기존 제품의 전문화를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에도 적극적
- 동사는 마케팅 대상을 컨테이너 생산기업 중심에서 해운선사들로 확대하고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에 적극적
- 해운선사들은 운송 과정에서 컨테이너 화물이 도난 되는 경우 법적 소송비용 발생 등으로 개선 필요성 절감
  - 동사는 보다 안전한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필요로 하는 해운선사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R&D 부문을 강화한 결과 해운선사들이 만족할만한 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도 취득
  - 해운선사들이 컨테이너를 발주할 때에 컨테이너 생산기업에 동사의 잠금장치 사용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사의 입지 강화 및 경쟁력 보유
- 그러나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과 함께 근로자의 후생복지비용도 연 15%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다각적 대응책 강구 중
  - 근로자들도 노동정책 변화는 물론 노동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 기업이 근로자를 선불리 해고할 경우 법원 제소 등으로 경영활동 위축, 무마비용 지출 외에 심지어 파견 직원의 신변에도 위협을 느낄 정도

-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적 노무 관련 자문을 위해 현지법인 소재지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 또한 임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위안화 가치 상승 등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진단도 준비 중
  - 동사는 매출액을 작년의 4,800만 달러에서 금년에는 6,000만 달러로 증대하고자 생산 및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중국계 화샤은행(華夏銀行)으로부터 무역금융 이용
- ## 6. 太倉 소재 ○○기업
- 마트에 사용되는 금속진열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01년에 현금 30만 달러와 한국의 중고설비를 투자한 중소기업으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미국 등 제3국에 전량 수출
  - 법인장은 부임 초기 3년간 기숙사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지 문화와 관습 파악에 주력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장으로 파견하고, 파견된 법인장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 경영과 관련한 충분한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 강조
    - 특히 내수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현지 파트너들은 협상결과를 본사에 보고 후 결정하는 법인장을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
  - 현지화 경영만이 중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하여 기숙사 생활을 통해 현지 근로자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관리자로 육성할 인재를 발굴
    - 부법인장, 공장장 등은 물론 중간관리자도 모두 현지인으로 충원하였으며, 파견 직원은 법인장과 한국 본사와의 연락을 위한 자금 관리자 2명에 불과
    - 파견 자금관리자도 한국 본사 인력 중 중국인과 결혼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서 근무가 가능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
  - 현지화의 중요한 요소는 단순히 중국 현지 인력의 사용이 아니며, 이직률이 높은 중국에서 핵심 인력이나 관공서 출입 인력이 법인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 출신

일 경우 언어와 정서상의 차이로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유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이에 따라 핵심 인력과 관공서 출입이 잦은 관리자는 법인 소재지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여타 관리자는 타 지역 출신도 선발하여 근로자 간의 위화감 해소
  - 생산직 근로자는 당해 지역과 타 지역 간의 별다른 제한 없음
- 동사는 정부가 노무관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는 절대 지양해야 하며 인간답게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
- 또한 동사는 부문간 업무 단절을 막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들을 일찌 출근하도록 하여 관리자모임을 갖고 직급에 따라 조기출근수당 지급
  - 초기에는 일상적 대화가 위주였으나 점차 대화의 주제가 담당업무 관련내용으로 확대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기되는 긍정적 효과
- 기업 경영에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상후하박의 급여체계 운용
- 한편, 컨테이너 당 수출대금이 25,000달러에 불과하나 필요시 항공 수송도 이용하는 등 해외 바이어의 납기 준수에 적극적

## 7. 蘇州 소재 ○○기업

- 삼성전자 협력업체로서 2004년에 에어컨과 냉장고용 주물을 생산하여 삼성전자 쭈저우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
-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완성품 업체간 경쟁심화로 인한 가격인하 압력에 대응하고 판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속적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
  - 쭈저우의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은 최근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은 물론 대만계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되어 전체의 약 20%만이 이익을 시현하는 실정
- 동사는 각종 세제 혜택 등에 대해 ‘특혜는 덤이다’라는 인식 하에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 및 관련 기술 전문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 또한 주물 제품의 대상을 기존 가전제품 영역에서 벗어나 자동차 부품용으로도 확대하여 자동차 터보엔진용 주물 생산에 나서는 등 제품 다양화 추구
  - 자동차용 주물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내수는 물론 수출도 적극 추진 중
- 현지화의 일환으로 생산 관리자를 모두 현지인으로 전환

## 8. 吳江 소재 ○○기업

- LCD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2003년에 진출하여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의 쑤저우 공장에 납품
- 임금 상승과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속도와의 전쟁'을 회사 모토로 내세우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
  - 종전 81m에 달하였던 생산라인의 동선이 공정의 단순화·자동화를 통해 52m로 축소됨에 힘입어 제품 생산속도가 대만계 경쟁기업이 7초당 1개인데 반해 동사는 3.5초당 1개로 향상됨
  - 속도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량률을 최소화하고자 3차원 영상시스템 가동
- 불량제품으로 고객기업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45분 내에 전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
- '현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하에 원·부자재의 현지조달비율을 점차 높이는 한편, 현지인에 의한 현지인 관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한편,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대신 사우회를 통하여 근로자 복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근로 연수에 따라 대우를 차별화
  - 6개월마다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연 4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근속기간별로 상여금 지급비율을 차등화하여 숙련 근로자의 이탈 방지

## III. 시사점

- 세제 혜택 축소, 임금 상승, 노무관리 강화 등 최근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기술 전문화, 생산성 향상, 현지화 등으로 대처

- 또한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확대되는 내수시장의 개척에도 적극적
  - 그러나 우리 기업이 브랜드 인지도 미흡, 대리상 등 유통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열위, 관시(關係)로 맺어진 중국 기업 간의 협력관계 등 애로 사항을 극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
- 한편,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태도가 예전처럼 융통성을 가지고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만을 유치하려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선회
- 최근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세제 혜택 축소: 원가절감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현지화 비율 제고방안 모색
    - 개별적이 아니라 중국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의 우리 수출 기업들은 비용 상승분을 점진적으로 수출가격에 반영하는 적극성 필요
    - 중국의 철강기업은 증치세 환급비율 축소 이후에 철강 수출가격을 이미 인상한 것으로 전언
  - 환경 규제: 점차 환경관련 시설을 갖추거나 불가피할 경우 환경 관련 생산 공정의 일부를 중국 기업에게 외주 가공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
    -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환경규제가 강하게 집행되지 않으나,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문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례 발생
    - 조만간 기존 진출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환경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처리 시설을 갖출 필요
    - 환경처리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중국 기업에 환경오염 관련 공정을 외주하는 형태도 검토 필요
  - 현지화: 특히 인력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보이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핵심 업무 종사자와 관공서 출입이 잣은 관리자 등을 법인 소재지 인력으로 충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일반적으로 현지화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지화는 법인 소재지에 주소를 둔 인력의

### 고용을 의미

- 방언, 정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역 이기주의 작용
  - 원·부자재의 현지조달 비율을 높여 원가절감에도 적극 나설 필요
- 노무관리: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일상적 노무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근로자 또는 지방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 축소 가능
-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일방적 근로자 해고 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선임연구원 김주영(☎3779-6647)  
E-mail : jykim@koreaexim.go.kr